



14면

"인류 건강 지향하는 글로벌 약학 허브"
전북대 약대비전포식 및 현판식

전주매일

2020년 6월 1일 월요일 (윤 4월 10일) 제254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한국판 뉴딜' 도정연계 안팎 뚫는다

전북도, 전문가 참여 6개 분야 사업추진단 구성 대형 IT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후속대책 마련 중

전북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실질적인 사업 발굴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 단장으로 하는 IT를 구성하여 6개 분야 사업발굴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밝혔다.

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도정 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해 도내 기업과 대학,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를 참여시켜 ▲디지털 인프라 ▲농업·농촌 ▲산업경제 ▲지역개발SOC ▲문화콘텐츠 ▲환경·안전·보건의료 등 6개 분야에 대한 과제발굴은 물론 사업화 추진과 국가예산 공모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5G관련 신산업 선점을 위해 이미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프라로 포함된 총 18개 사업을 발굴하는 등 향후 5개년에 대한 대응전략을 확보해 놓았다. 아울러 이번엔 추가로 12개 사업을 발굴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신규 사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세부 추진방향이 설정되는 즉시 분야별 세부 사업발굴과 추진조직 확대·구성 등 신속히 정비해,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높은 전북

/김진성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28일 이태원 클럽과 부천 유흥센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식장 정례식장, 관공지에 대해 추가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전주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첫 삽'

종교역사문화 전시·체험공간

지역 근대 개화를 주도하고 민족운동의 역사에 기여한 전주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의 착공식이 지난달 29일 예수병원 주차장 옆 기념관 예정부지에서 치러졌다.

철 부이사장, 김상기 운영위원장 등 기독교 인사들과 시공사인 (주)우진건설 관계자, 최명규 전주부시장 등이 참석해 근대기독교역사기념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했다.

과 사람 간 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했다. 이번엔 착공한 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은 예수병원 옆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전시실, 영상관, 의화박물관, 자료실 등으로 구성된다.

/김진성기자

전주 특례시 지정 단초 마련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전주시가 사실상 불투명했던 특례시 지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이는 정부가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전주가 인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대상에서 빠졌고, 그간 충분히 정부지원을 받은 수도권과 경남권의 고양시·수원시·용인시·창원시의 4개 도시만 혜택을 받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행·재정적 권한과 자치권이 주어진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같은 해 12월부터 전주 특례시 지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은 전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인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에 꾸준히 촉구해왔다.

향후 대통령령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정에 관한 부분이 전주가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당초 정부안에서 불가능했던 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내후의 실용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 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향후 국회의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성기자

전북지역 중소기업 체감경기 2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전북지역 소재 1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06월 전북지역 중소기업경기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2.4p 상승한 84.1로 2개월 연속 소폭 상승곡선을 보였다.

제조업의 6월 경기전망은 84.3으로 전월보다 7.2p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은 3.6p 하락한 83.9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8.3p 하락한 70.0로 전망되었고, 서비스업도 85.0으로 전월보다 3.0p 하락했다.

/김윤성기자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희망의 미래
융성하는 김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스마트농업 육성